

보도시점 2024. 9. 13.(금) 21:00
(2024. 9. 14.(토) 조간)

배포 2024. 9. 13.(금) 09:00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연결성, 신뢰, 인공지능 협력방안 논의

- 디지털 권리장전 및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정신 공유로 국제 디지털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9월 12 ~ 13일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유네스코(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 포용 및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성(UMC), △디지털 정부, △정보무결성 및 신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회원국)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니, 튀르키예,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연합(EU)

(초청국) 앙골라, 덴마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23.9월)’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 안전 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국제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브라질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연결성 개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기술 활용 및 역량 강화 등 디지털 협력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 조성을 위해 주요 20개국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 공동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한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켜, 국제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균형적인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장관회의의 논의 결과는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으로 구체화하여 발표되었으며, 디지털 격차 및 온라인 디지털환경의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결성 증진을 통한 포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허은영 (044-202-4360)
		담당자	사무관	유한걸 (044-202-436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